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5 Issue | Vol. 0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1월 인플레이션 전망 혼재
—page 1-2
- 필리핀 제조업, 2025년 힘찬 출발
—page 2
- 미국, 아시아 수출 및 통화에 악영향 줄 수도 —page 3-4
- PCCI, 하루 200페소 임금 인상 반대
—page 4-5
- BI, PEZA 데이터 공유 협약, 비자 처리 강화 —page 5
-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가속화 위해 원자력 발전 추진
—page 6-7
- 세계은행, 필리핀에 더욱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 촉구
—page 7-8

1월 인플레이션 전망 혼재

February 03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주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2.6%에서 3%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 소비자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경제학자 사라 탄(Sarah Tan)은 지난해 12월 2.9%였던 인플레이션이 1월에는 2.7%로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압박은 식품, 연료, 수도 요금 부문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1월 식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024년 말 폭풍의 영향을 반영할 것입니다."라고 탄은 말했다.

"홍수 피해로 인해 2024년 말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 압력은 새해 첫 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한편, 탄은 공공요금 부문에서는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력 생산 비용은 낮아지지만 국내 연료 비용 상승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월 1일부터 수도 요금도 인상되어 올해 내내 공공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Last-minute shoppers flock to Divisoria in Manila on December 31, 2024, just hours before the New Year, to buy essentials for the celebration.

Ryan Baldemor / The Philippine STAR

"2025년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필리핀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뒷받침하여 가계 및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HSBC의 아세안(ASEAN) 경제학자 아리스 다카나이(Aris Dacanay) 역시 1월 인플레이션을 2.7%로 예상하며, 쌀 가격 하락과 전기요금 완화가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착성이 강하며, 강달러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확산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바스켓의 비핵심 항목들이 아니었다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더 빨랐을 것입니다."라고 다카나이는 말했다.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쌀 공급 관리 노력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전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월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타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월 13일에 기준금리를 25bp(베이스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이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니온뱅크(UnionBank)의 수석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Ruben Carlo Asuncion)은 1월 인플레이션을 2.8%로 전망하며, 주택 임대료,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하락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월에 2.4%까지 최저점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 전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3.2%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RCBC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보다 낮은 2.6%를 전망하며, 이는 연말 연휴 이후 수요 감소와 글로벌 쌀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PI 바스켓의 9%를 차지하는 쌀 가격이 수입 쌀에 대한 관세 인하 및 국제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욱 저렴해졌다고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인 2%대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2025년 초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필리핀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큼니다."라고 리카포트는 덧붙였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1월 인플레이션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ont. page 2]

1월 인플레이션 전망 혼재

[Cont. from page 1]

PNB의 경제학자 앨빈 아로고(Alvin Arogo)는 인플레이션이 3%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원자재 가격 충격이 없다고 가정하면, 쌀 관세 인하, 베트남산 쌀 가격 하락 추세, 그리고 유리한 기저 효과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 내에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아로고는 말했다.

BPI의 수석 경제학자 준 네리(Jun Neri) 또한 1월 인플레이션을 3%로 예상하며, 교통 및 공공요금 부문에서의 가격 압력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분석했다.

"1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BSP의 2월 13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GDP 성장률 부진에 더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면 통화정책 추가 완화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라고 네리는 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BPI의 네리는 올해 금리 인하 폭이 50bp(베이스포인트)로 제한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의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폐소화가 외부 요인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BSP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폐소화가 상당한 외환시장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1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2월 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2월 13일 BSP 통화정책위원회의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2/03/2418711/inflation-forecasts-mixed-january>

필리핀 제조업, 2025년 힘찬 출발

February 03, 2025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S&P 글로벌 필리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월요일 발표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올해를 견조한 성과로 시작했으며,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긍정적인 영역에 머물렀다고 보고했다.

2025년 1월 필리핀의 제조업 PMI는 52.3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12월의 54.3에서 다소 하락한 수치다.

PMI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부문의 개선을 의미하며, 반대로 50 미만이면 부문의 위축을 나타낸다.

"S&P 글로벌 마켓의 경제학자 마리암 발루흐(Maryam Baluch)는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올해를 강한 수요 증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생산량은 다시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12월보다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몇 달 동안 고용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강한 수요가 제조업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쟁 심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 활동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한편, 제조업체들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인해 생산 전·후 재고 수준이 증가했습니다.

발루흐는 '2025년에도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산업 생산 성장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더 큰 수요를 예상한 제조업체들이 이미 재고 수준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고용 활동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발루흐는 '일부 설문 응답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3200>

미국, 아시아 수출 및 통화에 악영향 줄 수도

February 04, 2025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아시아는 올해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평균 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예상치인 3.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시아하우스 연례 전망 보고서(Asia House Annual Outlook 2025)에 따르면, 인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이 지역 내 '주요 성장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리핀 경제는 6.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서비스 산업 발전과 민간 소비 증가에 의해 견인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필리핀 경제 성장률은 5.6%로, 정부 목표치인 6~6.5%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하우스는 미국이 부과하는 높은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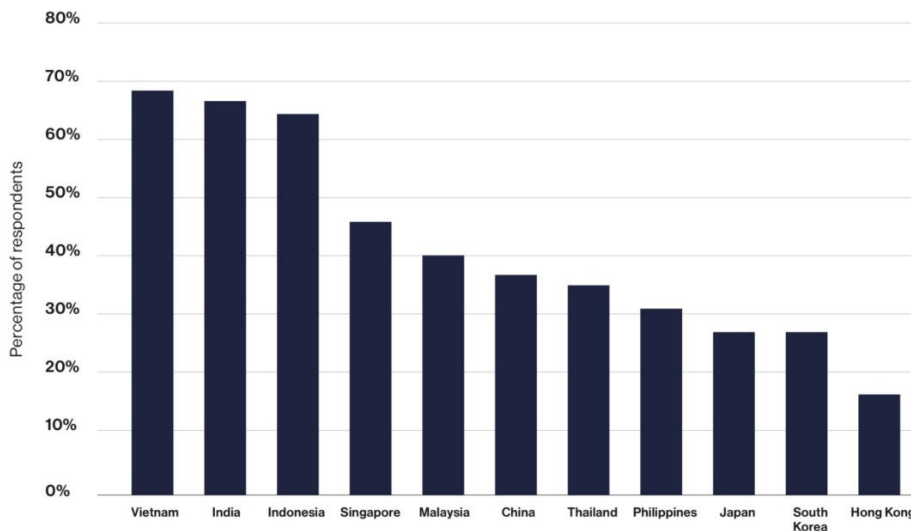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초과 생산품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 대거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섬유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원단 수입으로 인해 이미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필리핀의 중국 본토로부터의 수입액은 328억 2천만 달러, 대중국 수출액은 94억 4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234억 달러에 달했다.

Figure 10:

From the sample below, which economies do you think will offer attrac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2025? Select all that a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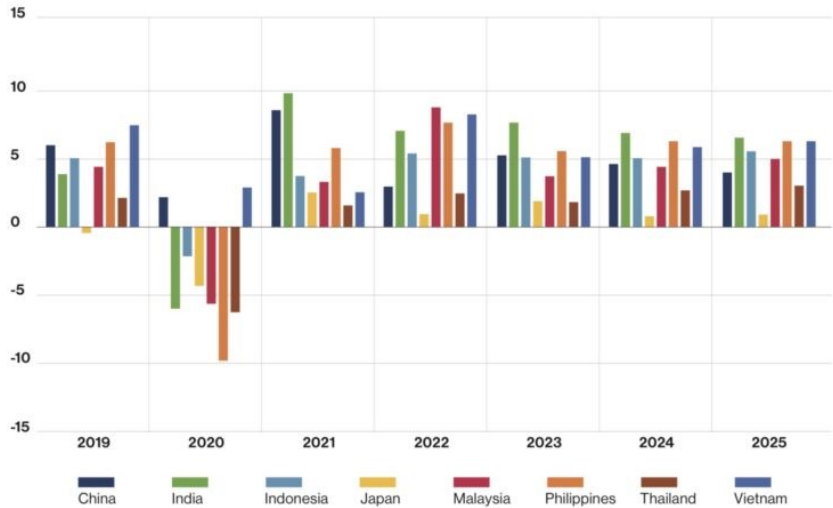


Source: Asia House Business Perceptions Survey, 2024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이번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공개된 보고서는 밝혔다. [Cont. page 4]

Figure 4:

Asia House Economic Outlook: Annual GDP growth⁵



Source: Asia House Research

Courtesy Asia House Outlook 2025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미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는 1,100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필리핀과의 무역 적자는 4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혐오하며,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미국 관세는 아시아 제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만들어 미국 내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아시아의 수출 주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더 높은 미국 금리와 강달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

미국, 아시아 수출 및 통화에 악영향 줄 수도

[Cont. from page 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현지 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며,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맞춰 금리를 조정해 왔다.

한편, 아시아하우스(Asia House)는 금융기술(FinTech) 및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현재 필리핀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디지털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을 의미한다.

필리핀,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FDI) 목적지 아냐

아시아하우스는 필리핀 경제의 강점과 디지털 및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집중이 2025년 아시아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독립 싱크탱크 아시아하우스는 연례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경제 성장 요인으로 해외 근로자의 송금(국내총생산의 8%)과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을 꼽았다. 이 자금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 매력도 조사에서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약 30%의 응답자가 필리핀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은 반면, 베트남(68%), 인도(66%), 인도네시아(64%)가 더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7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17.5% 감소했던 65억 달러에서 반등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2/04/u-s-may-dent-asias-exports-currencies/>

PCCI, 하루 200페소 임금 인상 반대

February 0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Workers are seen at a construction site along Commonwealth Ave in Quezon City, Jan. 30, 2025. — PHILIPPINE STAR/NOEL B. PABALATE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을 200페소 일괄 인상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PCCI의 에누니나 V. 망기오 회장은 5일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별 생활비 차이와 산업, 지역, 필요한 노동 유형에 따른 기업들의 고유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도시의 생활비는 농촌 지역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난주 하원 노동위원회가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200페소의 일괄 임금 인상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 나왔다.

망기오 회장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입법 조치는 생활비가 낮은 지역의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지역 임금위원회가 해당 지역 상황에 맞게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없앨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의 비효율성과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CCI에 따르면, 임금 인상의 결정은 지역별 생활비를 고려하여 "지역별 임금 책정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 임금위원회(Regional Wage Boards)에 맡겨야 한다.

망기오 회장은 이번 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 비용 상승을 초래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중소기업(MSME)은 이미 매우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적인 임금 인상은 이들 소기업이 더 높은 급여 비용을 감당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매업, 호텔업, 농식품 산업과 같이 마진이 낮은 업종의 경우, 임금 인상으로 인해 결국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5]

PCCI, 하루 200페소 임금 인상 반대

[Cont. from page 4]

망기오 회장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구매력을 감소시켜 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임금 인상의 효과는 상쇄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PCCI는 전면적인 임금 인상이 소규모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공식 부문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고용 인구 중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530%(약 1,000만1,200만 명)에 불과하며, 비공식 부문은 4050%(약 1,500만2,00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PCCI는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상승 중인 물가와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대신, 우리 임금 정책은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부담 능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MSME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공정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04/650824/pcci-opposes-p200-daily-wage-hike/>

BI, PEZA 데이터 공유 협약, 비자 처리 강화

February 02, 2025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이민국(BI)과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이 등록된 경제구역(에코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및 시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협정(DSA)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정은 1월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이 비자 신청 절차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고 일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DSA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인 BI는 비자 신청자로부터 수집한 필수 정보를 PEZA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번 협정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 공유 활동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법(Data Privacy Act)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자 처리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공유된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보안을 보장합니다."라고 조엘 앤서니 비아도 BI 국장이 밝혔다.

"PEZA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관할 내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테레소 팡가 PEZA 청장은 이번 협력을 환영하며, PEZA 경제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보안 조치 준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안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정은 또한 데이터 보관, 폐기 및 처리에 대한 엄격한 프로토콜을 명시하여 공유된 정보가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3171>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가속화 위해 원자력 발전 추진

February 03, 2025 | Victoria Milko & Aniruddha Ghosal | BusinessMirror



This aerial view on Sunday, Jan. 19, 2025, shows the Bataan Nuclear Power Plant, which has never produced a single watt of energy.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는 약 40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40마일 떨어진 바탄(Bataan)에 건설되었다. 이 발전소는 1970년대에 지어졌지만, 안전 문제와 부패 논란으로 인해 가동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단 한 와트의 전력도 생산하지 못했다.

이제 필리핀을 비롯한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가스, 석유 연소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을 통해 방사능 위험이 줄어들면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욱 안전해졌으며, 건설 비용이 낮아지고 규모도 작아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Fatih Birol)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를 보고 있다”며, “2025년에는 신규 발전소 건설, 각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 확대, 소형 원자로(SMR)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현재 32개국에서 413기가와트(GW) 규모의 원자력 발전 용량이 가동 중이며, 이는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아프리카 전체 발전 용량보다 크다. IEA는 온실가스 배출을 종식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번 10년 동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상당히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는 현재부터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의 에너지원 대부분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 기업이 필리핀의 장기간 가동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원자력 발전 계획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향후 원자력 발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미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수익성이 확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2016년 비용이 18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했지만, 올해 1월 14일 러시아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다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의 영국 기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헨리 프레스턴(Henry Preston)은 “국제 금융 기관들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 기후주간(Climates Week NYC)에서 14개의 주요 금융 기관이 2050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리는 목표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현재 어떠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에너지를 탈탄소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세계은행(World Bank) 대변인이 최근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밝혔다. “우리는 여전히 이사회, 경영진,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을 재고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헨리 프레스턴(Henry Preston)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부족한 강력한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여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 SMR)는 기존 원자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대형 원자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건설될 수 있어 특정 지역의 수요에 맞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설계가 단순하고 원자로의 핵심 출력이 낮으며 냉각제가 더 많아 사고 발생 시 운영자가 대응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Cont. page 7]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환 가속화 위해 원자력 발전 추진

[Cont. from page 6]

그러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에너지 시프트 인스티튜트(Energy Shift Institute)의 푸트라 아디구나(Putra Adhiguna)는 "소형 원자로가 아직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얼마나 경제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들은 국영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성능이나 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 배치를 목표로 했던 원자로 프로젝트의 비용이 계획보다 약 50% 증가하면서 결국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에 따르면, 아이다호(Idaho)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는 40년 동안 1메가와트시(MWh)당 55달러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비용이 89달러/MWh로 상승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필리핀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보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로 노심 용해 사고 역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촉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태국은 원전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또한, 2018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맛 당시 총리는 이러한 원전 사고 사례를 이유로 들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외에도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기술 시장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미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전 세계 농축우라늄 공급량의 약 40%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및 기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숙련된 엔지니어와 과학자 부족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약 2,4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넘어, 미래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 생태계와 기술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국영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Ghosal reported from Hanoi, Vietnam.

Image credits: [AP/Anton L. Delgado](#)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2/03/southeast-asia-eyes-nuclear-power-to-supercharge-its-energy-transition/](https://businessmirror.com.ph/2025/02/03/southeast-asia-eyes-nuclear-power-to-supercharge-its-energy-transition/)

세계은행, 필리핀에 더욱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 촉구

February 03, 2025 | Jekki Pascual | ABS-CBN News

마닐라 – 세계은행(World Bank)은 필리핀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레디(Business Ready, B-Ready)'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B-Ready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생애 주기 동안 개설, 확장, 재편성 및 폐업 과정에서의 시장 참여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필리핀은 노동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5.54점을, 국제 무역 부문에서 71.47점을 기록하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은 노동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제 무역 부문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 감독 기관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무역 부문에서는 전자 시스템과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필리핀은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설립(48.49점), 기업 파산(45.51점), 시장 경쟁(50.13점)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글로벌 지표 그룹 책임자인 노만 로아지야(Norman Loayza) 국장은 필리핀이 기업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Cont. page 8]

World Bank urges PH to be more business-friendly*[Cont. from page 7]*

“필리핀에서 새로운 국내 기업을 등록하는 데 75일이 걸립니다. 반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은 평균 3일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라고 그는 퀘존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밝혔다.

필리핀은 규제 프레임워크, 공공 서비스, 운영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부문에서 70.68점을 기록해 법률 및 정책적 측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50.80점) 및 운영 효율성(57.95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로아지아 국장은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 기업을 유도하고, 더 역동적인 민간 부문을 만들고 싶다면, 필리핀은 기업 설립 절차, 시장 경쟁,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등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부패 규제 기관인 **반(反) 레드 테이프 당국(Anti-Red Tape Authority, ARTA)**의 에르네스토 페레스(Ernesto Perez) 사무총장은 이번 B-Ready 보고서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 절차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필리핀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 절차를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과 정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최일선 직원들이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이 평가를 담당하는 최일선 직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페레스(Perez) 국장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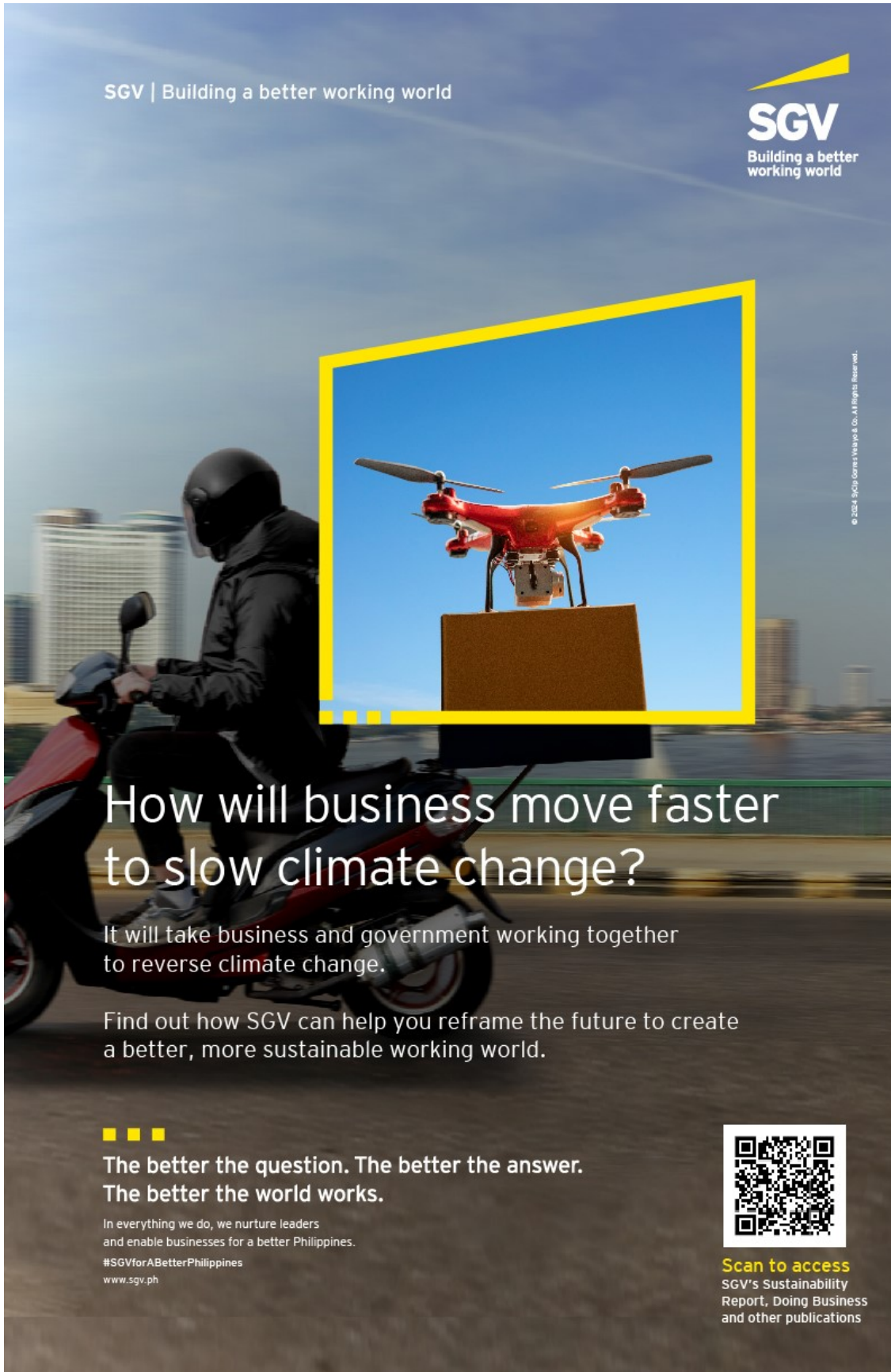
그는 현재 정부 공무원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비즈니스 절차를 개선하고 글로벌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B-Ready’ 가이드북을 제작 중이다. 이 가이드북은 올해 안에 발간될 예정이며, 세계은행이 필리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두 번째 평가에 맞춰 공개될 계획이다.

Source: <https://www.abs-cbn.com/news/business/2025/2/3/world-bank-urges-ph-to-be-more-business-friendly-2143>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Korea Trade & Co., All Rights Reserve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